

일 주 문



제1회 전국사찰청소년연합수련회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1월 22~24일 만해마을에서 제1회 전국사찰청소년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봉선사 자비도량참법 회향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1월 26일 봉선사 경내에서 자비도량참법 회향식을 개최한다.



고운사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월 27~29일 고운사 선체협관에서 의성 지역 청소년 4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해인사 제27회 겨울수련회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1월 14~28일 제27회 해인사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055)934-3110



불교사회연구소장 임명 서울 금산사 주지 법안 스님은 1월 24일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실상사회엄학림 졸업식 실상사회엄학림 학장 법인 스님은 2월 17일 화엄학림 제13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 18일 오행사 영결식 후 다비식에서 사리 8과 출현

“부처의 가르침 없인 인간세상도 없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이 1월 18일 오행사에서 영결사를 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큰 어른인 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이 1월 14일 새벽 5시 전남 강진 자비정사에서 입적했다.

의 가르침을 이어받아(相承佛祖心)/ 모든 것을 비우고 원만케 하여서(太虛爲圓草)/ 부처님 가르침대로 중생을 받들라.(普供法界衆)는 열반계승을 남겼다. 스님은 상좌들에게

“모든 중생을 존중하라. 앉아서 보는 것 보다, 모두에게 베풀며 살라”고 당부했다.

세수 98세, 법랍 70세로 입적한 영담 스님은 1914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하여, 1949년 백양사 만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남원의 대복사, 지리산 실상사, 경남 안정사 선방에서 서경보 스님 등과 함께 정진했다.

강진 무위사·고성사, 영암 망월사 주지를 역임, 영암 천황사, 광주 동광사 등을 창건했다.

이후 스님은 강진 자비정사 조실로 주석하며, 20여 고아들을 거두어 교육하며 후학양성에 매진했다. 2000년 대한불교 선각종 초대종정에 추대됐다.

문도대표 해관 스님은 “스님께서는 매일 2시에 일어나 금강경을 1독하고, 비로자나츄귀진언 60년 동안 1만독을

해오셨다”며 “종단의 큰 어른으로 계시면서도 무소유를 실천하고, 후학양성에 진력하셨다”고 소회했다.

해관 스님은 “특히 스님께서는 후학들을 위해 여러 개의 사찰을 창건했다”며 “최근 15일간 상좌들과 함께 태어나고, 수행했던 사람 등을 둘러 보고 마지막을 정리하는 만행을 다녀오셨다”고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한편 영결식은 1월 18일 오행사에서, 다비식은 화순 도원사 연화대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도륜 스님(봉감사 회주), 정암 스님(선각종 총무원장), 유선호 의원(국회의원), 황주홍 군수(강진군)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정암 스님은 영결사에서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합하고, 깨어있는 종단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다비가 끝난 후 습골에서는 8과의 사리가 출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문사·청암사 승가대학 졸업식



운문사승가대학(학장 명성)은 1월 18일 운문사 대웅전에서 제2회 보현유원 및 제47회 운문승가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흥륜 스님이 율주로 임명됐으며 스님 56명이 졸업했다.

또 청암사승가대학(학장 지형)은 1월 19일 청암사 자양전에서 제3회 청암사유원 및 제25회 청암사 승가대학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제3기 청암사유원 스님 4명이 졸업했으며 승가대학은 18명의 스님이 졸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참선으로 지도층 네트워크 구성”

선림원 원장, 조계사 주지 토 진 스님

“선림원은 이론과 실천 수행의 조화를 통해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선림원 원장을 맡은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사진)은 선림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2년 4학기 과정으로 열리는 ‘선림원’은 불교와 선에 대한 이해와 참선 입문 프로그램, 특강으로 구성된다. 매 학기별 법문에는 전국 선원의 방장·조실, 선원장 스님이 참여하며 법문과 참선입문 프로그램이 병행돼 이론 교육과 실천 수행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했다. 선림원은 사회 지도자들이 참선 교육에 참여해 개인의 변화와 사회적 실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토진 스님은 선을 알리고 교육하는 지속가능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스님, 선원장 스님들과 함께 선림원을 추진했다.

참선을 매개로 사회지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불교의 영향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선림원’의 1차적 목표다. 토진 스님은 경영, 스포츠 등 참선이 응용



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림원은 지도교수-지도수좌-지도법사로 이어지는 3사 시스템으로 수련을 강화하는 등 참선 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진 스님은 “선림원이 선의 세계화, 대중화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참선과 불교의 가치관 및 지도력의 사회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2-720-1390)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군인다운 신행생활 솔선할 터”

최 용 립 군불총 회장, 17일 신년하례서

“안보위기의 이때 불자들이 축이 돼 나라를 더욱 튼튼히 합니다.”

최용립 국군불교총연합회 회장(육군 중장·사진)은 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신년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호국불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질타보다는 부모가 자식 다그치고 품에 안듯이 다독여 주시면 군복무 생활에 큰 힘이 된다”고 말한 최용립 회장은 “올 한해 군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그로 말미암아 신심이 더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립 회장은 육사 33기로 2003년 중장 진급 후 특전사령부 공수여단장, 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거쳐 2006년 중장으로 진급했다. 특전사령관을 거쳐 국방부 특별검열 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예방에서 자승 스님은 최 회장이 특전사 출신인 것을 거론하며 송과구 특전사령부 호국지사 부지매입에 대해 물었다.

최 회장은 “총무원장 스님의 요청 이후 국방부에서 부지매각으로 가담을



잡아 현재 문광부 종무2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최용립 회장은 이어 “논산훈련소 군법당도 올해 마무리해 장병들의 신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의 의무이지만, 종교의 힘으로 더욱더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군불총의 육해공 군부대 위문방문 요청에 연내에 방문하겠다고 수락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대구 파계사 법광 스님 자비나눔 쌀 전달

대구 파계사(주지 법광) 1월 20일 대구 동구청에서 자비나눔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광 스님은 20kg 쌀 60포를 이재만 동구청장에게 전하며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광 스님은 쌀 전달식을 가진 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당뇨합병증으로 투병중인 비구니 해진 스님을 찾아 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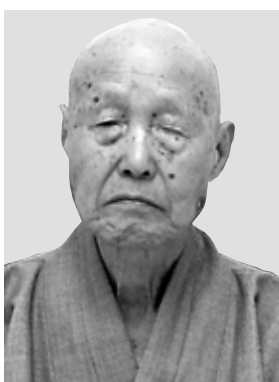
투병중인 해진 스님은 36세로 조계종 청암사에 출가해 승가대학 사직과 재학 중 몸이 아파 지금까지 15년간 당뇨, 신장염으로 혈액투석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해진 스님을 도울 분은 연락주세요. (010)9045-5215.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성당 봉정 대선사 원적



동성당 봉정 스님(사진)이 1월 16일 대전 배달장사에서 세수 103세로 원적에 들었다. 1909년 3월 11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로 11세에 아버지 연계선생(緣繼 先生) 안중팔(安重八)을

따라 북간도에서 한인촌을 지어 동포를 이주시키고 생활을 안정케 했으며, 임시정부 동지들과 함께 독립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오대산 한암 스님 회상에서 1931년 득도 후 생식 6년, 7년간 장좌불와했으며, 100세를 넘기고 다시 장좌불와 정진했다. 탄허대선사로부터 희봉(喜奉)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청우 스님에게 입실해 호는 동성(東星), 청우 스님의 법등을 이어 백파선사의 9세 법손으로 법맥을 이었다. 건봉사 주지와 해남 대흥사, 정음 내장사 회주를 지냈다. 노덕현 기자

2011학년도 법륜범음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범음대학은 불교전통의식 범음·범패 상주권공 과정을 체계 있게 교육하는 전문교육 기관입니다. 한국불교의 얼이 담겨있는 불교전통의식 범음·범패 관심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시는 각종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승·속·종단에 관계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입학 바랍니다.

입학 안내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상주권공)
입학대상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에 관계없이 가능함
교육기간 : 2년 과정 (방학 없이 특별휴강 있음)
접수처 : 법륜범음대학 교학처 (법륜사 종무소)
연락처 : ☎ 종무소 : 062)655-7444 / 회장 : 010-4116-5900 / 총무 : 010-7941-0017
주소 : 광주시 서구 금호동 206-5번지 법륜사 (금호지구 아파트내)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 (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3매, 주민등록등본 1통
접수기간 : 불기 2555년(2011) 2월 1일 (음력 12월 29일) 화요일 ~ 3월 3일 (음력 1월 29일) 목요일까지
(청강생 / 편입생 수시접수 가능. 단, 시험에 통과해야 함)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11년 3월 10일 (음력 2월 6일) 목요일 오후 14:00 법륜사 대강당
강주 : 상진스님 (前보우승가대학,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불교의식반 강주/現안정불교대학 법패과 강주)

법륜범음대학 학장 월인

강의 내용

Table with 3 columns: 학년 (1, 2), 학기 (1, 2), and content. It details the curriculum for the first and second years, including subjects like Buddhist Law, Buddhist Music, and Buddhist History.